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천주교 하와이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hurch Of Hawaii

대림 제 3주일

발행 천주교 하와이 한인본당
발행인 김영근 야고보
편집 하와이 한인본당 편집부

주소 2949 Kahawai St. Honolulu, HI96822
이메일 kccmanoa@hotmail.com
홈페이지 <http://hi.dj catholic.or.kr>

2017년 12월 17일(나해)
제 1891호



오늘의 미사

입당송

기뻐하여라. 거듭 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제1독서_이사야서 61,1-2 7,10-11

화답송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

제2독서_테살로니카 1서 5,16-24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복음_요한 1,6-8.19-28

영성체송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화답송



내 영혼이 - 내 하느님 안에서 기 - 뻐 하 - 네.



당신은 누구요?



이상욱 요셉
원신흥동 주임

대림 제3주일은 기쁨의 주 일입니다. 그 이유를 입당송에서 밝혀 주고 있습니다.

“기뻐하여라. 거둬 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필리 4,4-5 참조)

주님의 성탄이 점점 다가 오고 있으니 기쁨은 더욱 커 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도 이렇게 외

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은 나의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이사 61, 10)

화답송에서도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 라고 노래합니다. 반짝거리는 불빛들이 걸려 있는 크리스마스트리와 흥겨운 캐롤송이 들려와서 기쁜 것이 아니라, 구세주께서 바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고 함께 하심에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죠.

2독서에서 바오로사도는 더 구체적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밝혀 주었습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 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1테살 5,16-18) 하지만, 2천 년 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토록 간절히 다윗시대의 변영을 이루어 줄 구세주를 기다려 왔지만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혹시나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이 기다리던 그분이 아니실까 궁금해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라면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좀 알려주세요.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소?”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의 큰 기대와 관심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러 왔다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일 뿐이고, 내 뒤에 오실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자신을 더 드러낼 생각이나 자랑할 욕심도 없고, 사람들이 더 알아주고 인정해 주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살아갈 따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당신은 누구요?” “저는 원신흥동성당 주임신부입니다.” 이 대답 속엔 일단 사제이고, 원신흥동성당 소속이고 주임신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사제로서의 삶을 제대로 잘 살고 있을까? 원신흥동성당의 교우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본당신부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걸까? 내게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내가 인정받고 드러나기보다, 세례자요 한처럼 교우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함께하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을까?”

세례자 요한이 받았던 “당신은 누구요?” 이 물음을 우리에게도 해 보이겠습니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로서, 일터의 한 구성원으로서, 천주교 신자로서, 성직자·수도자로서... 우리는 내가 누구이며 무엇 하는 사람인지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엔 제대로 모르는 듯이 불충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기다림의 시기, 깨어 준비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다시금 각자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살아가야 할 자신의 몫을 세례자 요한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기쁨의 주일, 성탄의 기쁨을 노래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736)
유판식 토마스





준비 운동 후 대화 시작



어떤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생각보다 내 말뜻을 못 알아들어 답답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혹은 내 생각을 잘 전달한 것 같은데, 나중에 엉뚱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마치 이방인처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면, 우리는 종종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어쩜 저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들을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오히려 상대방이 말을 잘 알아듣는 것이 매우 신기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듣는 쪽 사람들은 충분한 이해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말이라도 말하는 사람은 몇 번 생각했던 걸 말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 그 말은 처음 듣게 되는 거라 그 말의 맥락을 가늠하기 어려워집니다.

아무리 길게 말하는 사람의 말도 듣는 사람에겐 짧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라 본의 아니게 많은 단어나 문장들을 생략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내 말을 금방 못 알아듣는다고 화를 내거나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전혀 준비 운동을 시키지도 않고 누군가를 수영장에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정이나 직장 안에서 사람들끼리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고 고도 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대화가 되려면 먼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한 번 말한 걸 서너 번 더 이야기해야 그게 처음 말한 것과 같고, 충분히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조금 더 길고 자상하게 이야기해야 그게 최소한의 설명이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 번 되풀이십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는 준비 운동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응답할 때입니다.

이충무 바오로/ 극작가(건양대학교 교수)

옥 치과 일반치과, 신경치료, 응급치료 메디케어 제공 / 946-2785	동양관광여행사 항공권도매/섬일주/이웃섬 관광/호텔예약 944-3949/info.orient1988@gmail.com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김남훈(베드로)CPA 회계감사, Book Keeping, 세금보고 947-2470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재산증식/무료상담 차 그레고리오 / 226-3344	MYCOMP 컴퓨터 수리 & 교육(그룹, 개인) 김효석(요셉) / 398-9695	최 니콜 부동산 732-5004,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65세 이상 건강보험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203-7038
United Credit Education Service 크레딧 교정, 복원 전문회사/무료상담 백승희(아나스타시아) / 931-9249	메리장 가정의학 클리닉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료합니다. 예약전화 808-941-7799	아일랜드빈티지커피 알라모아나/로알하와이안 쇼핑센터 강호철 (바오로) / 941-9300	최현희(보나) 부동산 부동산매매/상담 및 문의를 환영합니다 636-5217

함께 나누고픈 좋은 글이나 후보관련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kccmanoa@hotmail.com 한인본당사무실(988-6047)

성탄 송년 미사 안내

12월 24일	아침 6시 30분 대림 제4주 새벽미사
	오전 11시 30분 대림 제4주 교중미사
	오후 2시 대림 제4주 어린이 미사
	오후 6시 30분 주님 성탄 대축일 전야미사
12월 25일	오전 11시 30분 주님 성탄 대축일 낮 미사
12월 31일	밤 9시 송년 미사(솔렉)
1월 1일	오전 11시 30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12월 24일(일) 주님 성탄 대축일 전야 미사를 위한 오후 시간에도 차량 봉사 일정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 안내 (준비물: 새번역 성경)

일시 : 교중 미사 전 (11시 5분~11시 25분)

오늘의 본문 : 창세기 7장-10장

※참고 : 창세기 입문과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우나케아 소공동체 모임 안내

일시 : 12월 셋째 주일 오후 5시

마노아 워링봉사회 모임 안내

일시 : 12월 셋째 주일 미사 후 성당

한글학교 안내

12월 17일에 마지막 수업이 있고, 24일은 시화전으로 가을학기가 종강됩니다. 새로운 봄 학기는 내년 1월 7일부터 5월 24일까지 15주간 수업이 진행됩니다.

골목집 후원금 납입 안내

골목집에서 청소년사목을 위해 2,000불 후원하였습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 전야 미사

미사 : 12월 24일(일) 오후 6시 30분

식사 : 8시 ~ 8시 40분

행사 : 8시 40분~ 9시 50분(마노아)

공연 및 경품 행사(Raffle Ticket \$1)

※1등 \$ 500 여행 상품권

※2등 \$ 300 테블릿

※3등 \$ 200 상품권

이외에 많은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금, 물품 등 도네이션을 하실 분들은 담당자에게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 니콜라우스 (367-7713)

주님 성탄 대축일 행사 도네이션

- 임 요안나
- 한 율리아나

감사합니다

골프 대회 회비 잔액을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지난 주(12월 10, 11일) 우리들의 정성(\$ 23,158.92)

주일헌금	교무금	2차 헌금
\$ 3,412.92	\$ 6,335	\$ 1,090

*헌 금 : 토요 \$ 592 아침 \$ 467

교중 \$ 12,102.92 청년 \$ 341

*교무금 : 토요 \$ 1,415 아침 \$ 2,950 교중 \$ 1,970

*2차 헌금 : 토요 \$ 188 아침 \$ 162 교중 \$ 740

*솔렉 미사책 \$ 252 *성탄 행사 후원금 \$ 500

*성소후원금 \$ 345 *사회복지기금 \$ 10,180

*마노아 미사책 \$ 252 *성물 판매 \$ 152

미사 시간 안내

마노아	•주일미사 : 오전 6:30, 11:30(교중 미사), 오후 3:00(청소년 미사)
	•평일미사 : 화요일 오후 7시, 수요일 오전 10시
	•성 시간 : 첫 화요일 7시 미사 중
솔 렉	•주일미사 : 토요일 오후 7시 •평일

주임신부 : 김영근(야고보) [사제관 (808) 892-1480]

- 사 무 실 : 전화. (808) 988-9678 팩스. (808) 988-6047
- 이메일. kccmanoa@hotmail.com

예비자 교리 :

매주일 10시 강당 회의실

성경 공부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성당
- 솔렉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미사 후 강당(솔렉성당 지하)

▪ 병자성사나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환자 또는 망자 발생시는 연령회(회장 박춘경 데레사 224-3335)로 연락주십시오.